

영성과 생명에 대한 소고

-고린도후서 5:17을 중심으로-1)

배재욱*

들어가는 말

생명 사상에서 영성적인 측면은 불안정한 사회 구조 속에서 그리스도교인의 본질과 책임을 새롭게 일깨운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뿐 아니라 영성과 생명에 대한 탐구는 인간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고 세상을 유익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인식하고 살피고 지키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영성이 생명 회복에 어떻게 관련되는가? 이러한 도식을 이해하기 위하여 영성이 생명 사상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 지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고린도후서 5:17에 나타나는 카이네 크티시스(*καινη κτίσις*,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진술을 중심으로 신약성경에서 영성이 생명 사상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고린도후서 5:17에 나타나는 *καινη κτίσις*에서 카이노스(*καινός*)가 ‘하나님의 구원’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살필 것이다. *καινός*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바울이 의도하는 영성의 의미를 찾게 되면 *καινός*가 생명 사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영성’이란 말이 새롭게 나타난 말이고 이 말에 대하여

* 영남신학대학교 교수, 신약학

1) 이 논문은 2017년 4월 21일(금) 서울신학대학교 100주년기념관에서 “종교개혁 500주년과 신약의 성령”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08차 한국신약학회 정기총회 및 정기학술대회에서 “영성과 생명(고후 5:17)”이란 주제로 발표된 필자의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예가 드물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리하느냐에 따라 논지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영성을 존재론적인 개념으로 먼저 생각하고 실생활에 나타나는 변화된 모습을 영성이란 관점에서 이해한 후 영성과 생명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καίνετος*가 영성의 측면에서 생명 사상과 가지게 되는 관련성도 중요한 논제가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5:17에서 ‘생명의 상’이 3가지로 나타난다. 1.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생명 (17a) 2. 새로운 피조물(17b) 그리고 3. 세상을 위한 생명(17c). 이 세 가지 ‘생명’의 상을 탐구하기 위하여 영성과 ‘생명 상’이 어떤 관련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자는 먼저 영성의 의미를 인간의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영성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난 후 영성과 생명 사상의 연결을 시도할 것이다.

영성과 생명의 연결을 이해하면 신약성경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스(*Χριστός*)란 표현을 통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영성’을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그것이 ‘생명에 미치는 기능’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5:17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를 예고한다. 그래서 먼저 ‘새로운 피조물 됨’이 영성과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생명 사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때 17절에 있는 *ἐν Χριστῷ*라는 언급이 ‘새롭게 됨’과 무슨 관련을 가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영성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고 그것과 생명 사상을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면 엔 그리스도(*ἐν Χριστῷ*,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련을 지어 새롭게 됨을 이해할 때 *ἐν Χριστῷ*가 ‘새롭게 됨’과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를 이해해야 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연관성을 고찰하면서 ‘새롭게 됨’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이 논문에서 영성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생명 사상과 연결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이제 고린도후서 5:17에 나타나는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생명’의 의미에 앞서 그 본문의 문맥적인 배경을 알아보기로 하자.

1.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해

1.1. 고린도후서 5:17의 배경과 문맥

인간의 생명이 아름답고 고귀한 것은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 데 있다.²⁾ 이 고귀한 생명에 대한 이해를 고린도후서 5:17에서 탐구하기 위하여 먼저 17절의 앞 뒤 문맥을 살펴보고자 한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17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다.

신 인식의 문제는 인간 각자의 가장 근본적인 것까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변화를 수반한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영성의 길이다.

고린도후서 5:1-10에서 바울은 ‘땅에 있는 장막 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5:1-10)에 관하여 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화해’(11-15절)에 대하여 언급한다. 1-10절에서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대조되는 구조로 언급된다. 그런데 이 단락은 17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피조물 됨의 의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7절 이후 18-21절에서 바울은 화해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 단락에 나타나는 화해는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된 자는 하나님과 화해된 자임을 말하면서 고린도인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할

2) 생명의 고귀함과 생명의 근원 문제에 관하여는 배재욱,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생명: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을 묻다』(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36-42, 특히 36과 배재욱, 『생명: 신약성경에서 생명을 묻다』(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15, 32를 보라.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17절은 1-16절과 18-21절 사이에서 독립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낸다.

17절을 위와 같이 분해하면 17절은 17a절과 17b절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지고 17a절과 17b절과 17c절은 점층적인 구조와 아울러 서로 평행절을 이룬다.

17절은 아래와 같은 구조로 분해할 수 있다.

17aa ὥστε

17ab εἴ τις ἐν Χριστῷ,

17ba καινὴ κτίσις·

17bb τὰ ἀρχαῖα παρῆλθεν,

17c ἰδοὺ γέγονεν καινά.

17aa 그런즉 누구든지

17ab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17ba 새로운 피조물이다

17bb 이전 것은 지나갔다

17c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위에서 예시된 17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a절은 17aa절과 17ab절로 분리 되면서 두 부분이 점층적인 구조를 이루면서 17b절과 17c절은 평행절 구조로 나타난다. 17b절은 17ba절과 17bb절로 나누어지면서 위에서와 같이 역 점층적 구조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보면 17aa절과 17ab절은 17ba절과 17bb절이 점층적 구조로 나타나면서 17ba절 “새로운 피조물이다.”와 17c절의 “보라 새 것이 되었다”가 서로 평행을 이룬다. 이와 같이 17절에 점층적 구조와 아울러 평행절이 나타나므로 17절 해석은 복합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2. 고린도후서 5:17에 나타난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17은 인간의 ‘새로운 피조물 됨’을 말하는데,³⁾ 신약성경에서는 이것을 헬라어 *ἀνακαινωσις*로 표현한다.⁴⁾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ἀνακαινωσις*는 ‘새창조’와 관련되는 단어이다.⁵⁾

그런데 고린도후서 5:17에 나타난 새창조의 개념에 대하여 지금까지 케제만(Ernst Käsemann)은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새창조’를 보았고, 이 구절에 나타난 새창조를 스트라찬(R. H. Strachan)⁶⁾과 멜(U. Mell)⁷⁾은 우주론적인 관점에서 보았다. 잭슨(Ryan T. Jackson)은 고린도후서 5:17에 나타나는 새창조가 언급된 모든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본다.⁸⁾ 그런데 허바드(Moyer V. Hubbard)는 인간학적인 면에서 신자의 구원과 관련되는 것으로 ‘새창조’를 보기도 했다.⁹⁾ 필자는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허바드의 견해와 비슷한 논리로 이 문제를 보고자 한다. 마틴(Ralph P. Martin)은 고린도후

-
- 3) 인간이 가진 생명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데 있다. 이것에 대한 것은 배재욱, “바울의 생명사상 I. 바울의 생명관의 문제와 그 배경에 대한 이해,” 『기독교사상』 577 (2007), 213을 참조하라.
- 4) 배재욱, “바울의 갱신 사상(更新 思想)과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고린도후서 5장 11-21절의 ‘새로운 피조물’을 중심으로,” 『신학사상』 139 (2007), 69. 필자는 앞의 논문에서 “신약성경에서 ‘갱신’을 나타내는 헬라어 *ἀνακαινωσις*는 ‘새롭게 함’, ‘갱신’(Erneuerung, renewal)으로 번역 할 수 있는데(참조. 롬 12:2; 딤후 3:5), 이 말은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것과 비교하여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 5) 이것에 대해서는 배재욱, “초기 팔레스틴 유대교의 새창조 사상,”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2 (2007), 86-87을 보라.
- 6) R. H. Strachan, *The Second Epistle of Paul to the Corinthians* (New York : Harper and Brothers, 1935).
- 7) U. Mell, *Neue Schoepfung. Eine traditionsgeschichte und exegetisch Studie zu einem soteriologischen Grundsatz paulinischer Theologi*, BZWNT 56 (Berlin/New York, 1989).
- 8) T. Ryan, Jackson, *New creation in Paul's letters: a study of the historical and social setting of a Pauline concept* (Mohr Siebeck, 2010).
- 9)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Moyer V. Hubbard, *New creation in Paul's letters and though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를 보라

서 5:17에서 *ἐν Χριστῷ, καινή κτίσις*를 갈라디아서 6:14-15와는 다르게 “그리스도의 도래에 의해서 출현한 새로운 종말론적 상황과 결부되어있다”¹⁰⁾고 보았다.

이 구절에 나타난 *καινή κτίσις*는 우주론적인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이사야가 말한 (51:9f.; 54:9f.; 참조 42:9; 43: 18f.)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종말론적인 용어”이기에 필자는 고린도후서 5:17에서 *καινή κτίσις*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사와 관련하여 구 원론적인 관점으로 이해해야 옳다고 본다.¹¹⁾

고린도후서 5:17에서 *καινή κτίσις*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새롭고 기적적인 것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된다.¹²⁾ 또 이 단어의 구성요소가 되는 *καινός*가 하나님의 구원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미래적인 구원을 예시한다.¹³⁾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후 5:17)

10) Ralph P. Martin, *2 Corinthians*, 김철 역, 『고린도후서』, WBC 성경주석 40(서울: 솔로몬, 2007), 346.

11) 이러한 이해에 대해서는 Rudolf Bultmann/Kendrick Grobel, (tr.)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1*, Scribner Studies in Contemporary Theolog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1), 306-8; W. D. Davies, *Paul and Rabbinic Judaism* (London: SPCK, 1955), 121ff.; 랠프 P. 마틴/김철 역, 『고린도후서』, 345를 보라.

12) 배재욱, “바울의 새롭게 됨 사상과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고린도후서 5:11-21절의 ‘새로운 피조물’을 중심으로,” 『평양대부흥운동의 성경신학적 조명. 회개와 새롭게 됨. 평양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 성서학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한국신학정보연구원, 2007), 330. 새롭게 됨에 대해서는 JosAs 16:8-10, 14-16 그리고 요 6:27, 33, 35, 48-59를 참조하라.

13) 미래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강대훈, “마태복음의 구원론에 대한 소고-정훈택의 마태복음 구원론 이해-,” *신약연구* 15:4 (2016), 608-616; 김현광, “로마서 11:25-27에 나타난 ‘은 이스라엘’의 구원,” *신약연구* 15:4(2016), 763; 심상길,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는 로마서 11장 25-26절에 대한 연구,” 『신약논단』 23 (2016), 248; Richard N. Longenecker, *The Epistle to the Roman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16), 897을 보라.

17 ὥστε εἴ τις ἐν Χριστῷ, καινὴ κτίσις· τὰ ἀρχαῖα παρῆλθεν, ἰδοὺ γέγονεν καινά.

2. 그리스도와 ‘영성과 생명’의 관계

17a ὥστε εἴ τις ἐν Χριστῷ,

17a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시편 42:8에서 하나님은 엘 하이아이(אֱלֹהֵי חַיִּים, ‘생명의 하나님’)로 묘사된다. 또 시편 36:9(MT에는 36:10)는 마콥 하이임(מִיְיָ אֱלֹהֵינוּ,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는 것을 선언 한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시 27:1)고 말하는 시인은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원됨에 대하여 묘사한다. 생명이 하나님과 관련됨을 말하는 언급이 구약성경에 자주 나타나는데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생명에 대한 언급은 생명의 기원에 대한 구약성경의 시각을 드러낸다. 즉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구약성경의 시각은 신약성경에 그대로 전승되었다.

사도행전 3:15은 예수를 ἀρχηγὸν τῆς ζωῆς(‘생명의 주’)라고 지칭한다. 요한복음 6:35는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묘사하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로 갈 때 주리지 않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다”라고 한 사도행전 2:28(참조. 약 1:12; 요일 1:1; 계 2:10)에서 보다시피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는 인간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 주시는 분으로 묘사된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5:17에서 바울이 왜 ‘새로운 피조물 됨’을 ἐν Χριστῷ와 관련시키는 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ἐν Χριστῷ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1. ἐν Χριστῷ(‘그리스도 안’)

헬라이어 크리스토스(Χριστός)는 신약성경에 빈번하게 나타난다. 신약성경에서 헬라이어 고유명사 Χριστός는 전치사 ἐν(롬 9:1; 12:5; 고전 3:1 등), διά(고후 1:5; 3:4; 5:18), ὑπέρ(고후 5:20; 12:10; 빌 1:29), σύν(롬 6:8; 빌 1:23) 그리고 εἰς(롬 16:5; 고후 1:21; 갈 3:24) 등과 함께 사용되는데 그 중 ἐν과 결합된 형태가 가장 자주 나타난다.(롬 3:24; 6:11; 8:1-2; 12:5; 갈 2:4; 3:26 등 바울 서신에서 약 28회 정도) 이 때 Χριστός와 ἐν의 결합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다. 바울서신에서 διά Χριστοῦ(‘그리스도를 통하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 사건’을 직설적으로 선포하지만, ἐν Χριστῷ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 사건’의 결과로서 일어난 그리스도인의 ‘현재적 실존’을 내포하는 데서 차이가 난다.¹⁴⁾

바울은 ἐν Χριστῷ라는 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받아들이는 인간 존재와 그리스도 사이에 나타나는 일치와 연합을 묘사한다. 즉 바울서신에서 ἐν Χριστῷ와 관련된 존재는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새로운 존재”¹⁵⁾임을 묘사하는 구조에 들어 있다. 로마서 8:1-2에서 “새로운 생명을 나타내는 원동력은 성령”¹⁶⁾이며, 성령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 이 새로운 생명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죄에 그 근거를 가진다. 고린도후서 5:17에서 바울은 새로운 생명이 ἐν Χριστῷ와 관련됨을 말한다. 이 때 ἐν Χριστῷ는 구원론적인 구조 속에 있다. 바울은 로마서 8:9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육신 안에(ἐν σαρκί) 있지 않고 ‘성령 안에(ἐν πνεύματι) 있다고 선언한다. 이 ἐν πνεύματι라는 구조를 통해 바울은 인간이 처한 실존적 현재를 나타내는 동시에 종말론적인 구원 사상을 내포한다.¹⁷⁾

14) 성종현, “엔 크리스토,” 『기독교사상』 373 (1990), 234를 보라.

15) 배재욱,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기독교사상』 580 (2007), 167.

16) 배재욱,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167.

17) 이것에 대해서는 성종현, “엔 크리스토,” 236f.를 참조하라.

2.2. ἐν Χριστῷ의 구원론적인 의미

이제 ἐν Χριστῷ의 구원론적인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자.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새롭게 했다.¹⁸⁾(참조. 마 26:28; 막 14:24; 고전 11:25; 히 12:24; 13:20)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엡 2:13) ‘새 계약이 맺어졌다는 것을 말 했다. 히브리서 기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새 계약’을 ‘영원한 계약’(히 13:20)으로 말한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14-15에서 *καινή κτίσις*(‘새로운 피조물’)를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갈 6:14)와 관련 시킨다. 이 구절에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을 드러내는 말로 나타낸다. 고린도후서 5:14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은 인간의 ‘새롭게 됨’의 근거가 된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후 5:14; 참조 고전 15:3)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이다.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한 존재가 되었다. 죽음 속에 처해 있는 인간이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선물하셨다.¹⁹⁾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인 히브리어 *מָשִׁיחַ*의 번역어인 *Χριστός*란 칭호를 예수란 이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란 복합 형태의 칭호를 사용하여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초기교회 때부터 고백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란 칭호를 고유 명사처럼 초기 교회 때부터 신앙고백적인 언어로 사용하였다. 이 칭호를 통해 초기 교회는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것, 그가 자기 교회 위에 왕권을

18) 쿨란-에세네 공동체 규칙에서는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이루신 계약에 대한 언급이 나타난다.(참조. IQS 4:22) 계약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H. Lichtenberger, “‘Bund’ in der Abendmahlsüberlieferung,” in F. Avemarie.H. Lichtenberger(hg.), *Bund und Tora. Zur theologischen Begriffsgeschichte in alttestamentlicher, frühjüdischer und urchristlicher Tradition* (Tübingen: J. C. B. Mohr, 1996), 217-228. H. Lichtenberger, “Alter und Neuer Bund,” *NTS* 41 (1995), 400-414를 보라.

19) James Denney, *The Death of Christ* (London: Tyndale Press, 1960), 83과 비교하라.

행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종말에 메시아로서 지상에 다시 나타나시리라는 것을 강조했다.”²⁰⁾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경험한 초기 교회는 ‘그리스도’란 칭호를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에 대한 칭호로 사용했다. (참조. 막 15:26; 롬 3:24-25; 5:6; 8:34, 39; 14:9,15; 고전 1:13, 17, 23; 2:2; 5:7; 8:11; 15:3)

바울은 고린도후서 5:17에서 Χριστός의 복합형인 ἐν Χριστῷ란 용어를 ‘새로운 피조물 됨’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다. 바울은 ἐν Χριστῷ에 관한 사상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사는 삶과 연관하여 묘사하기도 했다. 바울은 ἐν Χριστῷ란 말을 사용하여 “‘엔 크리스토’ 시대의 도래 와 함께 지금까지 인간을 지배해 왔던 ‘죄’(ἁμαρτία)와 죽음(θάνατος)과 율법(νόμος)”²¹⁾의 통치’가 끝났다는 것을 선포한다.(참조 롬 5-7장) 이러한 구원 도식에서 보면 구원론의 정점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론적인 도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롬 8:1)는 말로 그려진다. 하나님의 계시자이고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재정립되었다.(참조 고전 15:3; 갈 3:13)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바울의 선언(롬 8:1)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대한 선언이다. 이 선언은 그리스도가 속죄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선물된 구원의 소식이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생명의 의미를 알기 위하여 ἐν Χριστῷ란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왜 바울은 ἐν Χριστῷ란 의미를 구원과 관련지어 말하는가?

20) Oscar Cullmann, *The Christology of the New Testament*, 오스카 쿨만, 김근수 역, 『신약의 기 독론』 (서울: 도서출판 나단, 2001), 216.

21) 성종현, “엔 크리스토,” 235.

2.3.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

고린도후서 5:17에서 바울은 Χριστός란 말을 통하여 ‘새롭게 됨’을 묘사한다. 이 구조에 적용되는 생명 사상은 구약성경의 ‘새 창조’ 사상을 새롭게 이해하여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한 것이다.²²⁾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존재를 의미한다.”²³⁾ 여기서 “새로운 존재란 옛 존재가 물리적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존재”이므로 καινή κτίσις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의 시작을 나타낸다.”²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이다. 그런데 이 변화는 인간적인 수련이나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인간을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로마 서 8:2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2)는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묘사한다. 여기서 τὸ πνεῦμα τῆς ζωῆς(‘생명의 성령’, 참조. 겔 37:5-6; äthHen 61:7)는 ‘새로운 생명’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한다.²⁵⁾ 성령을 τὸ πνεῦμα τῆς ζωῆς로 묘사한 바울의 성령 이해에서 보면 성령과 생명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22) ‘새 창조’ 사상에 대해서는 헤르만 리히텐베르거, 배재욱 번역, “새창조와 중생,” 정기덕 교수 정년 기념 특집, 『신학과학』 16 (2007), 105-127; 배재욱, “초기 팔레스틴 유대교의 새창조 사상,” 85-112를 보라.

23) H. Lichtenberger, “Neuschöpfung und Wiedergeburt. Überlegung zu ihrer eschatologischen Bedeutung im Neuen Testament,” Öffentliche Antrittsvorlesung (unveröffentlichte Arbeit), Tübingen 14.5.1986, (1-21), 8f.를 참조하라.

24) H. Lichtenberger, “Neuschöpfung und Wiedergeburt. Überlegung zu ihrer eschatologischen Bedeutung im Neuen Testament, Öffentliche Antrittsvorlesung (unveröffentlichte Arbeit), Tübingen 14.5.1986, (1-21), 8f.를 참조하라.

25) Peter Stuhlmacher, *Der Brief an die Römer*, NTD 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8, 109를 참조하라.

요한복음 16:7에서 성령의 도래가 예수의 죽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참조 요 7:39) 그런 데 바울서신에서 예수의 죽음과 성령의 도래 사이의 관련성이 뚜렷하게 언급되지 않는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롬 8:32)란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하신다.(참조 롬 8:17; 고전 6:2-3)²⁶⁾는 연관성이 나타난다. 이 언급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성령의 도래가 서로 연관됨을 유추할 수 있다. 로마서 8:32에 나타나는 τὰ πάντα(“모든 것”)를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으로 나타난 선물의 범위 안에서 이해하기도 한다.²⁷⁾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게 나타난다.²⁸⁾ 그런데 로마서 8:32에서 볼 때 ‘모든 것’에 성령을 포함시키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 이유를 로마서 8:31의 문장 첫머리에 등장하는 οὗν이란 부사어가 18-30절과 31-39절을 서로 이 어 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οὗν이 연결하는 18-30절과 31-39절이 전혀 다른 성격의 문맥이 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롬 8:27)하시는 성령이 32절에 서 말하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즉 ‘모든 것’에 포함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신 댓가로

26) 배재욱, 『잘쓰부르그에서 바울에게 길을 묻다: 젊은 세대를 위한 로마서 이해』(서울: 한국학술정보 (주), 2007), 130f.를 참조하라.

27) 차정식, 『로마서 (II)』,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37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89를 보라. τὰ πάντα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Ernst Käsemann, *An die Römer*, HNT 8a (Tübingen: Mohr Siebeck, ⁴1980), 239; Heinrich Schlier, *Der Römerbrief*, HThK VI (Freiburg et al.: Herder, 31987), 277; James D. G. Dunn, *Romans 1-8*, WBC 38A (Dallas: Word Books, 1988), 509-510; Eduard Lohse, *Der Brief an die Römer*, KEK IV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52003), 256; 박익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복음. 로마서 주석 II(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89를 보라.

28) Peter Stuhlmacher, *Der Brief an die Römer* (Göttingen [u.a.]: Vandenhoeck & Ruprecht,¹⁵1998), 127을 참조하라.

하나님께서 정죄 당할 위기 속에 처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²⁹⁾ 그 ‘모든 것’에 성령이 포함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³⁰⁾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언급한 문장 구조에서 보면 성령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에 포함된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행 2:38)란 언급에서 보면 누기는 성령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묘사하고 볼 수 있다. 동시에 그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연결된 구조 속에 함께 두면서 그 밀접한 관계를 말하고 있다.³¹⁾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다.”(롬 8:32a)는 언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을 나타내면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롬 8:32b)는 언급 속에 성령은 ‘모든 것’ 속에 포괄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바울서신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성령의 도래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모든 생물의 생명’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참조 욥 12:10)는 구약 성경의 생명 이해에서 보면 ‘생명의 원리’가 ‘하나님의 영’과 연관되어 나타난다.(참조 겔 36:25-27) 신약성경에서도 성령은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³²⁾이다. 바울은 로마서 8:2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언급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성령과 연결시킨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17에서 바울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29) 이것에 대한 논지 구성을 2017년 2월 10일 차정식 교수와의 대화를 통해서 찾게 되었다. 사도행전 2:38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됨을 말하고 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구조로 묘사되는 본문은 누가복음 11:13; 갈라디아서 3:5; 요한일서 4:13에서 보라.

30) 이것에 대해서 박성호, “그리스도의 종말 심판 대리와 십자가 죽음의 관계 : 로마서 8장 31-34절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23:1 (2016), 210을 보라.

31) 성령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막스 터너, “성령세례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디에 있다. 누가행전 예서의 성령과 구원,” 「영산신학저널」 26 (2012), 7-30; 박형용, “성령 세례와 성도의 구원,” 「신학정론」 9:1 (1991), 24-56, 특히 37-39를 보라.

32) 배재욱, “바울의 생명사상 IV.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기독교사상」 580 (2007), 164-171, 특히 167.

있느니라.”란 말로 ‘영’을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생각한다.

바울에게서 ἐν Χριστῷ(‘그리스도 안에서’, 롬 9:1-2; 엡 1:3; 몬 1:20)란 어구와 ἐν πνεύματι ἀγίῳ(‘성령 안에서’, 롬 9:1-2; 15:16; 고전 6:11)란 어구가 때때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면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동일성’을 나타내기도 한다.(롬 9:1-2)³³⁾ 바울은 고린도전서 15:45에서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을 ‘생명을 주는 영’(πνεῦμα ζωοποιῶν)으로 표현한 것과 로마서 8:2에서 τὸ πνεῦμα τῆς ζωῆς(‘생명의 성령’³⁴⁾)란 표현을 통하여 그리스도론적인 관련 속에 두고 있다. 이러한 그리스도론적인 진술이 성령 이해의 중심적인 표현이듯이 고린도후서 5:17에 나타나는 ἐν Χριστῷ란 언급은 성령 이해의 핵심적인 표현이다. 이 점에서 ἐν Χριστῷ는 바울의 생명 이해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 그것은 생명 이해에서 성령이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로마서 8:2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인간을 살리는 τὸ πνεῦμα τῆς ζωῆς(롬 8:2)로 나타난다. 그리스도가 ‘영’으로 나타나는 이 구조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신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근거이다.³⁵⁾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죽음을 극복하고 살수있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신다.

33) 이것에 대한 토론에 대해서는 김희성, 『부활신앙으로 본 신약의 성령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137ff.를 보라.

34) 그러나 이 반대로 “영은 주이다”라는 공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영의 관계에 대한 토론은 배재욱, “바울의 생명사상 IV.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168을 참조하라. πνεῦμα ζωοποιῶν을 개역판은 ‘살려 주는 영’으로 번역한다.

35) 배재욱, “바울의 생명사상 IV.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기독교사상』 580 (2007), 164-171, 168f.

3. 새창조, 영성 그리고 생명

3.1. 새로운 피조물과 영성

17b καινή κτίσις

17b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전서 5:17에서 καινός란 형용사는 ‘새롭고 기적적인’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 ‘하나님의 구원’이란 의미를 아울러 담고 있다. 고린도후서 5:17b의 ‘새로운 피조 물’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경험하는 존재론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καινή κτίσις(고후 7:17b)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καινὸς ἄνθρωπος(‘새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5:17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다. 세상에 사는 한에서 인간은 그의 생명이 한계 속에 있다.(창 3:22-24)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인간은 그런 운명 앞에 노출되어 제한적인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운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결되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11-15와 18-21절 사이에 위치한 16-17절에서 근본적으로 ‘새롭게 됨’에 대하여 말한다. 17aa절에서 ἐν Χριστῷ³⁶⁾는 이 구절에서 문장 구조상 중심에 있고 이 ἐν Χριστῷ에 전체 문장이 연결되면서 ἐν Χριστῷ는 모든 피조물의 ‘새롭게 됨’의 전제 조건이 됨을 서술한다. 즉 인간이 새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고후 5:16-17) 이러한 구조에서 바울은 ‘새롭게 됨’의 근원을 오직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환희와 감격과 감사함으로 전혀 새로운

36) “그리스도 안”(ἐν Χριστῷ)에 대해서는 성종현, “엔 크리스토,” 『기독교사상』 373 (1990), 232-239를 보라.

삶을 시작한다. 그는 새로운 인생의 경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 이 새로운 경험은 영성의 삶이다. 그래서 영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의 경험’ 즉 ‘갱신의 삶’이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활동하는 새로움을 창조하는 영이다. 이런 논지의 근거를 구약성경에서 볼 수 있다. 에스겔 36:25-27은 מִיְהוָה מֵיִם(‘맑은 물’)이라는 상징 언어를 사용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새롭게 함’의 역사를 예고한다.³⁷⁾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논지의 전승을 신약성경에서 볼 수 있다. ‘새롭게 됨’이 고린도후서 5:17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성취된다. 디도서 3:5에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 이루어진다.³⁸⁾ 성령 안에서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이것은 예레미야 31:31에 나타난 새로운 계약의 성취이다. 그것이 어그러지고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새로운 관계로 맺어진 자의 생명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은 새로운 계약의 성취로 나타난다.³⁹⁾

‘새롭게 됨’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성취된다.(참조. 고후 5:21) 그래서 예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καινός άνθρωπος, 참조. 엡 2:15)된 자들은 ‘새 생명 가운데서’(ἐν καινότητι ζωῆς, 롬 6:4) 살게 된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은 ‘새 계약의 공동체’⁴⁰⁾를 탄생시켰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었다.⁴¹⁾ 비유는 ‘새 계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

37) 에스겔 36:26에서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 성취되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이 비록 병렬적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맑은 물을 뿌리는 구원 행위에 의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38) 배재욱, “디도서 3:4-7에서의 중생(παλιγγενεσία)과 그의 전 역사,” 「신약논단」 12:4 (2005), 921-951, 특히 929f.를 참조하라.

39) 이것에 대해서는 H. Lichtenberger, S. Schreiner, “Der neue Bund in jüdischer Überlieferung,” *ThQS* 176 (1996), 234-290의 새계약을 보라.

40) 새 계약의 공동체에 관해서는 H. Lichtenberger, “Alter und Neuer Bund,” 400-414; H. Lichtenberger, “‘Bund’ in der Abendmahlsüberlieferung,” in F. Avemarie, H. Lichtenberger(Hg.), *Bund und Tora. Zur theologischen Begriffs-geschichte in alttestamentlicher, frühjüdischer und urchristlicher Tradition* (Tübingen: Mohr Siebeck, 1996), 217-228; H. Lichtenberger, S. Schreiner, “Der neue Bund in jüdischer Überlieferung,” *ThQS* 176 (1996), 272-290을 보라.

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본다. 에베소서 2:13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새 사람’(καινός άνθρωπος)으로 나타난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17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언급을 통하여 ‘새롭게 됨’이 그리스도와 떼어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음을 밝힌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갱신을 의미한다.(참조 고후 5:17; 엡 2:10, 4:24; 골 6:10)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구조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된 구속이 생명 신학의 시금석이다.(참조 갈 6:14)

이 관계에서 볼 때 ἐν Χριστῷ와 ‘새로운 피조물’은 서로 연관 속에 있고 ‘새로운 피조물 된 자’는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다.(참조 롬 6:1ff.)고린도후서 5:14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은 17절에 나타나는 ‘새로운 피조물’ 됨에 관련된다. 그런데 이 구절에 나타난 속죄 죽음과 ‘새롭게 됨’의 관계 속에 세례 전승이 반영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는 운명의 공동체로 묶여 있는 신분이다. 이 때문에 세례와 관련되는 구조에서 보면, ‘새로운 피조물 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나타낸다. (참조 롬 5:3-5) 세례는 예수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을 내포한다.⁴²⁾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하

41) 참조. 막 14:24; 고전 11:25; 히 12:24; 13:20.

42) 슈멜러(Thomas Schmeller)는 καινή κτίσις(‘새로운 피조물’)가 바울 이전에 사용된 전례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창조 사상을 진술하기 위해서 이 καινή κτίσις를 언급하고 있다고 본다. 이것에 대해서는 Thomas Schmeller, *Der zweite Brief an die Korinther. 2Kor 1,1-7,4*, EKK VIII/1(Neukirchen-Vluyn-Ostfildern: Neukirchener Theologie-Patmos Verl., 2010), 326; Erich Gräßler, *Der zweite Brief an die Korinther*, 1, Kapitel 1,1-7,16 Ökumenischer Taschenbuch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8/1. ÖTK.NT 8/1 Gütersloher Taschenbücher Siebenstern (Gütersloh: Gütersloher Verl.-Haus, 2002), 222-223을 보라.

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갱신된 삶을 보증한다. 고린도후서 5:17에서 바울은 ‘누구든지’란 말을 통해 ‘우주적인 구원’을 나타내면서 구원의 완전성을 분명히 한다.(참조 막 3:35; 마 12:50) 이 구절에 나타나는 이러한 ‘우주적인 구원’은 구원이 어느 민족 또는 어느 특정한 범위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 전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시고 ‘최후의 승리자’이다.

17ba τὰ ἀρχαῖα παρῆλθεν,

17bb ἰδοὺ γέγονεν καινά.

17ba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17bb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그러면 이제 먼저 ‘새로운 피조물 됨’에서 얻는 영성과 생명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한다.

3.2. ‘새로운 피조물 됨’에서 얻는 영성과 생명

고린도후서 5:17은 인간의 ‘새로운 피조물 됨’을 말한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 새로움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한 헬라어는 형용사 καινός이다. 헬라어 καινός를 통하여 표현되는 ‘새로움’은 ‘질적으로 새로운 어떤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καινός는 ‘새롭고 기적적인 것’을 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질적으로 새로움을 의미하는 καινός는 고린도후서 5:17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 이 점에서 보면 바울은 καινός를 인간 영성을 위한 중요한 방편으로 이해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애 3:23)라고 했다. 이 구절에

서 예레미야는 새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됨을 말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새로움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이해를 바울에게서도 볼 수 있다. 고린도후서 4:16에서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고 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15에서 “할레나 무할레가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고 했다. 마틴(Ralph P. Martin)은 고린도후서 4:16을 주석하면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주어지고(골 3: 10. 새 아담) 성령으로 말미암아(1: 22; 5:5) 그리스도가 내 주하는(엡 3:16: 4:22.24) ‘새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소망을 맞본다.”⁴³⁾고 하면서 ‘새 사람 됨’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내주(內住)하심’을 관련지어 해석한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에서 마틴은 새롭게 됨의 근거를 그리스도와 관계지어 해석한다.

고린도후서 5:17에서 *καινός*는 ‘종말론적인 약속’(막 14:24-25; 마 26-28-29; 벧후 3:13; 계 2:17; 3:12; 5:9; 21:1-2, 5)과 관련된다.⁴⁴⁾ 고린도후서 5:17에서 *καινός*는 갱신의 경험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는데, 갱신의 경험은 구원확신을 이끌게 되고 구원확신을 통하여 각자는 ‘새롭게 된 피조물’로 자아를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새롭게 됨’을 통하여 영성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새롭고 기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영성에 이를 수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행위는 인간 영성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신적 본성의 근원을 살피는 가운데 인간은 영성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다. 이 때 현재적인 구원에 대한 인식과 확신을 하게 된다. 이러한 확신은 미래적인 완전한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산출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신자의 생명은 현재의

43) 랠프 P. 마틴, 김철 역, 『고린도후서』, 246.

44) ‘카이노스’(καινός)에 대해서는 Walter Bauer, Kurt Aland(Hrsg.), *Griechisch-deutsches Wörterbuch zu den Schriften des Neuen Testaments und der frühchristlichen Literatur* (Berlin [u.a.]: de Gruyter, 1988), 799-800을 보라.

‘새롭게 됨’과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종말적인 구원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고린도후서 5:17에서 ‘새로운 생명’은 다음 3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1.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생명(17a) -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2. 새로운 피조물(17b) - “새로운 피조물이라”
3. 세상을 위한 생명(17c) -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인간의 생명은 ‘새롭게 됨’과 하나로 어우러져 있으면서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구원과 깊은 관련 속에 있다. 고린도후서 5:17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언급이 실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과 함께 중요하게 대 두되는 문제가 인간 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인간 속에 일어나는 변화는 하나님의 구원행동에 대한 반응이다. 그래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그래서 각자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인간의 인식 문제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 대한 인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신 인식의 문제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나가는 말: 영성을 통한 생명 회복

고린도후서 5:1-21에서 땅에 있는 장막 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고후 5:1-10)에 관한 언급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화해’(11-15절)에 연결되면서 18-21절에서 ‘하나님의 화해’로 이어진다. 11-15절과 18-21절은 화해를 묘사하는 단락인데, 그 두 단락 사이에 5:17이 위치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새로운 생명’을 진술한다.

그 ‘새로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음으로 얻은, 현재적인 ‘생명’(ζωή)이다. 하지만 현재적인 생명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성취되는 그리스도인 각자의 부활의 생명을 담보하게 된다. 이 때 미래적인 생명 사상으로 나타나는 생명 사상은 부활의 희망을 담은 하나님의 구원 선포의 핵심을 이룬다. 그러므로 생명(ζωή)은 지금 여기서 누리는 ‘현재적인 축복’(참조. 요 5:24-26; 행 2:28 등)이면서 동시에 부활의 희망으로 표현되는 ‘미래적인 축복’(참조. 롬 5:10-11; 고후 3:6-18)을 나타낸다.⁴⁵⁾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새 사람을 지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셨다.(엡 2:14-16)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인은 전 우주(κόσμος)를 품고 세상의 화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존재이다.

바울이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롬 12:18)고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바뀐 사람은 ‘새롭게 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개별자로’ 거룩하게 사는 것과 아울러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로’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 공동체로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위협과 고난 속에서 살아갈 때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서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새사람 된 자로서 살아가는 자가 현실에서 추구하는 영성의 길은 개별자로서, 세례 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사는 데 있고 나아가 함께 신앙 공동체로서,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하여 서로 마음을 낮추고 섬기고 사랑하는 데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새롭게 됨’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변화를 수반한다. 이것은 인간에게 이루어진 다분히 인간화적인

45) 생명의 미래적인 축복과 현재적인 생명 진술에 대해서는 배재욱, 『생명. 신약성경에서 생명을 묻다』(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56-58; 배재욱, 『초기 유대교와 신약성경의 중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198-199를 보라.

사건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인간 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다. 인간의 ‘새롭게 됨’, 즉 ‘새롭게 된 생명’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 성취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취되는 새롭게 됨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성이다.

καινός는 ‘종말론적인 약속’(막 14:24-25; 마 26-28-29; 벧후 3:13; 계 2:17; 3:12; 5:9; 21:1-2, 5)과 관련되어 ‘현재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아울러 ‘미래적인 구원’과도 관련된다. ‘새롭게 됨’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 성취된다. 이때 바른 영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영성의 삶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환희를 경험하게 된다.

“구원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활동”에 의하여 기인되므로⁴⁶⁾ 영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생명의 영성적인 측면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인식하고 지키는데 있다. ‘새롭게 된 피조물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된다는 점에서 영성은 생명 사상의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한다.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영성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참조. 엡 4:22-24)

<주제어>

영성, 생명,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ἐν Χριστῷ)

<key word>

Spiritualität, Leben, Sühnetod Christi, neue Schöpfung, ἐν Χριστῷ(in Christus)

* 접수일 2018년 2월 21일, 수정일 2018년 3월 30일, 게재 확정일 2018년 4월 10일

46) 배재욱, 『초기 유대교와 신약성경의 증생』, 153.

참고문헌

- 강대훈. “마태복음의 구원론에 대한 소고 -정훈택의 마태복음 구원론 이해-.” 『신약연구』 15:4 (2016), 605-650.
- 김희성. 부활신앙으로 본 신약의 성령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김현광. “로마서 11:25-27에 나타난 ‘온 이스라엘’의 구원.” 『신약연구』 15:4 (2016), 760-787.
- 리히텐베르거, 헤르만. 배재욱 번역. “새창조와 중생.” 정기덕 교수 정년 기념 특집. 『신학과 문화』16 (2007), 105-127.
- 박성호. “그리스도의 종말 심판 대리와 십자가 죽음의 관계: 로마서 8장 31-34절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23:1 (2016), 187-228.
- 박익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복음』. 로마서 주석I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 박형용. “성령 세례와 성도의 구원.” 『신학정론』 9:1 (1991), 24-56.
- 배재욱. 『초기 유대교와 신약성경의 중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 배재욱. 『잘쯔부르그에서 바울에게 길을 묻다: 젊은 세대를 위한 로마서 이해』.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2007.
- 배재욱. “디도서 3:4-7에서의 중생(παλιγγενεσία)과 그의 전 역사.” 신약논단 제 12권 제 4호 (2005년 겨울), 921-951.
- 배재욱. “바울의 생명사상I. 바울의 생명관의 문제와 그 배경에 대한 이해.” 기독교 사상 577(2007), 212-221.
- 배재욱. “에베소서 4장 25-32절에 나타난 분노로부터의 자유.” 『신학논단』 (2010), 31-57.
- 배재욱. 『생명, 신약성경에서 생명을 묻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배재욱. “바울의 새롭게 됨 사상과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고린도후서 5:11-21절의 ‘새로운 피조물’을 중심으로.” 평양대부흥운동의 성경신학적 조명: 회개와 새롭게 됨. 평양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 성서학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한국신학정보연구원, 2007, 329-346.
- 배재욱. “바울의 갱신 사상(更新思想)과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고린도후서 5장 11-21절의 ‘새로운 피조물’을 중심으로-.” 『신학사상』

139 (2007), 65-105.

배재욱.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기독교사상』 580 (2007), 164-171.

배재욱. “초기 팔레스틴 유대교의 새창조 사상.”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2 (2007), 85-112.

배재욱.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생명: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을 묻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성종현. “엔 크리스토.” 『기독교사상』 373 (1990), 232-239.

심상길.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는 로마서 11장 25-26절에 대한 연구.” 『구약논단』 23 (2016), 229-264.

이영미. “출산, 돌봄, 그리고 구원의 기쁨: 이사야 66:7-14에 나타난 생명 옹호적 구원이해.” 『신학사상』 123 (2003), 125-148.

차정식. 『로마서 II』.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37.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터너, 막스. “성령세례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디에 있나?: 누가-행전에서의 성령과 구원.” 『영산신학저널』 26 (2012), 7-30.

Bauer, Walter. Aland, Kurt(Hrsg.). *Griechisch-deutsches Wörterbuch zu den Schriften des Neuen Testaments und der frühchristlichen Literatur*. Berlin [u.a.]: de Gruyter, 1988.

Bultmann, Rudolf. Grobel, Kendrick.(tr.)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1. Scribner Studies in Contemporary Theolog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1.

Cullmann, Oscar. *The Christology of the New Testament*. 오스카 쿨만. 김근수 역. 『신약의 기독교론』. 서울: 도서출판 나단, 2001.

Davies, W. D. *Paul and Rabbinic Judaism*. London: SPCK, 1955.

Denney, James. *The Death of Christ*. London: Tyndale Press, 1960; 1973.

Dunn, James D. G. *Romans 1-8*. WBC 38A. Dallas: Word Books, 1988.

Gräßer, Erich. *Der zweite Brief an die Korinther*. 1. Kapitel 1,1-7,16. Ökumenischer Taschenbuch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8/1. ÖTK.NT 8/1. Gütersloher Taschenbücher Siebenstern. Gütersloh: Gütersloher Verl.- Haus, 2002.

- Hubbard, Moyer V. *New creation in Paul's letters and though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Jackson, T. Ryan. *New creation in Paul's letters : a study of the historical and social setting of a Pauline concept*. Mohr Siebeck, 2010.
- Käsemann, Ernst. *An die Römer*. HNT 8a. Tübingen: Mohr Siebeck, ⁴1980.
- Lerner, Harriet Goldhor. *The Dance of Anger*. 러너, 해리엇 골드허, 김태련 . 이명선 역. 『무엇이 여성을 분노하게 하는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8.
- Lichtenberger, Hermann. "Neuschöpfung und Wiedergeburt, Überlegungen zu ihre eschatologischen Bedeutung im NT." *öffentliche Antrittsvorlesung*, Tübingen(1986), 1-21.
- . "Alter und Neuer Bund," *NTS* 41(1995), 400-414.
- . "'Bund' in der Abendmahlsüberlieferung," in F. Avemarie. H. Lichtenberger(hg.), *Bund und Tora. Zur theologischen Begriffsgeschichte in alttestamentlicher, frühjüdischer und urchristlicher Tradition*. Tübingen: Mohr Siebeck, 1996, 217-228.
- Lichtenberger, H. SchreinerSchreiner, S. "Der neue Bund in jüdischer Überlieferung," *ThQS* 176 (1996), 234-290.
- Lohse, Eduard. *Der Brief an die Römer*. KEK IV.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¹⁵2003.
- Longenecker, Richard N. *The Epistle to the Roman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16.
- Martin, Ralph P. *2 Corinthians*. 마틴, 랠프 P. 김철 역. 『고린도후서』. WBC 성경주석 40. 서울: 솔로몬, 2007.
- Mell, U. *Neue Schoepfung. Eine traditionsgeschichte und exegetische Studie zu einem soteriologischen Grundsatz paulinischer Theologi*. BZWNT 56. Berlin/New York, 1989.
- Schlier, Heinrich. *Der Römerbrief*. HThK VI; Freiburg et al.: Herder, ³1987.
- Schmeller, Thomas. *Der zweite Brief an die Korinther. 2Kor 1,1-7,4*. EKK VIII/1. Neukirchen-Vluyn · Ostfildern: Neukirchener Theologie · Patmos Verl., 2010.

Strachan, Robert Harvey. *The Second Epistle of Paul to the Corinthians*.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35.

Stuhlmacher, Peter. *Der Brief an die Römer*. Göttingen [u.a.]: Vandenhoeck & Ruprecht, ¹⁵1998.

<초록>

영성과 생명에 대한 소고

-고린도후서 5:17을 중심으로-

배재욱

(영남신학대학교 교수)

고린도후서 5:1-10에서 바울은 ‘땅에 있는 장막 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5:1-10)에 관하여 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화해’(11-15절)에 대하여 언급한다. 18-21절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화해’에 대해서 진술한다. 5:17은 화해를 묘사하는 11-15절과 18-21절 사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생명의 의미를 ‘새로운 생명’으로 규정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그리스도의 죽음인데 고린도후서 5:14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이 ‘새롭게 되는 근거’로 이해된다.

고린도후서 5:17은 ‘새로운 피조물 됨’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말한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새로운 피조물’됨은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나타내는 헬라어 *καινός*라는 형용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이 구절에서 *καινός*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καινός*(그리스도 안)란 말을 통하여 *ἀμαρτία*(죄)와 *θάνατος*(죽음)와 *νόμος*(율법)의 통치가 종말에 이르렀음을 선포 한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존재’를 의미한다. ‘새롭게 됨’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새로운 ‘생명 역사’의 기원이 된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경험하는 존재론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으로 인해 해방과 자유가 성취되었다.(참조. 고후 3:17)

고린도후서 5:17에 나타난 *καινή* *κτίσις* 진술은 에베소서 4:24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로 언급되는 진술인 *ὁ καινὸς ἄνθρωπος* (‘새 사람’)와 비슷한 의미로 볼 수 있는데 *ὁ καινὸς ἄνθρωπος* 진술을 통하여 영성과 생명의 흔적을 찾고자 노력했다. 비록 죽음이 지배하는 황폐함 속에 처해도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로 살기 위해 새 사람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희망을 함유하게 된다. 이런 변화는 인간 속에 이루어진 영성의 모습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영성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선물하신 생명을 표현하는 한 요소이다. 생명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 다시 회복한 기쁨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창조의 원형이다. ‘새로운 피조물 됨’에 대한 묘사에 영성의 중요한 단면이 나타난다. 그것은 영성의 길이 옛 사람을 벗고 (참조. 엡 4:22) “새로운 피조물”(참조. 고후 5:17)로 살아가는 데 있다.

<Abstract>

Die Spiritualität und das Leben in II Kor 5:17

Prof. Jae Woog Bae
(Young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Die Sprüche Salomos weisen darauf hin, daß der zerstörende Zorn sich eng auf den Charakter des Menschen bezieht: “Der Narr - sein Unmut tut sich an demselben Tag noch kund, wer aber die Schmach verborgen hält, ist klug.”(Spr 12:16) Dass man mit dem Zorn lebt und dies mit dem Verlust der Menschlichkeit einhergeht, ist unvermeidlich. Es ist aber auch notwendig, dass man die Hoffnung auf ein neues Leben hat. Dieses Leben erfolgt nach der Gnade der Sühne, die Jesus Christus erfüllt. In II Kor 5:14 wird der Tod Christi als der Grund der Erneuerung des Menschen bezeichnet. In II Kor 5:17 wird von einer neuen Schöpfung(*καινή κτίσις*) gesprochen. Dann *καινός*, das qualitativ ganz neuartig äußert, bezieht sich auf die Rettung Gottes. In diesem Vers wird deutlich, dass das Ende von *ἁμαρτία*, *θάνατος* und *νόμος* angekommen ist, durch das Wort *ἐν Χριστῷ* verkündigt. *καινή κτίσις* bedeutet eine neue Schöpfung, die sich in Christus erfüllt. ‘Die neue Schöpfung’ erfüllt sich durch den Tod Christi, und der Tod Christi bildet das neue Leben. Deshalb bedeutet ‘die neue Schöpfung’ die wesentliche Veränderung. Die Freiheit und die Erlösung erfüllen sich durch den Sühnetod Christi.(vgl. II Kor 3:17)

Der Ausdruck “Ihr habt den neuen Menschen angezogen,” der in Epheser 4:24 vorkommt, weist auf den Weg der Spiritualität hin, die Paulus beabsichtigt.

Man muß,den neuen Menschen anziehen“, damit man in

der erneuernden Gnade Christi überlebt, obwohl man in der Verwüstung bleibt, wo der Tod herrscht. Der Weg der Spiritualität liegt darin, dass man den alten Menschen abgelegt hat(vgl. Eph 4:22) und als eine neue Schöpfung lebt.(vgl. II Kor 5:17)

Die Spiritualität beginnt, indem man die Rettung Gottes annimmt. *καινός* bezieht sich auf ‘das eschatologische Versprechen’(Mk 14:24-25; Mt 26-28-29; II Pet 3:13; Apk 2:17; 3:12; 5:9; 21:1-2, 5), auf ‘das gegenwärtige Rettungshandeln Gottes’ und auf ‘das künftige Rettungshandeln Gottes’. Die neue Schöpfung erfüllt sich durch die Erneuerung des Heiligen Geistes. Dann kann man die Spiritualität verstehen und die Freude des neuen Lebens erfahren. Durch die Erfahrung der Spiritualität kann die neue Schöpfung die Gnade genießen und sich des neuen Lebens erfreuen.